

## 6 배체 트리티케일 X 2 배체 호밀의 잡종초기세대에 있어서의 교잡능력 및 염색체수의 변이와 작물학적 특성

액류연구소      황 종진\*  
서울대학교      이 흥식

Crossability, variation of chromosome number, and agr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progeny derived from the crosses between the hexaploid triticale (X Triticosecale wittmack) and diploid rye (Cereal secale L.)

Wheat and Barley Research Institute : Hwang, J.J.  
Coll. of Agri.,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H. S.

실험목적: 트리티케일의 품종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6 배체 트리티케일과 2 배체 호밀을 교잡하여 세대별 교잡능력을 조사하고 후대에서 나타나는 염색체수의 변이와 작물학적 특성을 검토코자 함.

### 재료 및 방법

1. 공시품종 : 6 배체 트리티케일 ( $2n=6x=42$ , AABBRR) : 신기호밀 (TC)  
2 배체 호밀 ( $2n=2x=14$ , RR) : 팔당호밀 (R1), 춘추호밀 (R2)
2. 교배조합 : TC/R1, TC/R2
3. 세대육성 : F1, F2, B1, B2.
4. 조사항목 : 임실율, 천립중, 화분활력, 체세포 염색체수, 감수분열 양상  
기타 작물학적 특성

### 시험결과 및 고찰

1. F1의 평균 임실율은 40.5% 있고 역교배에서는 교배성공율이 극히 낮았다. F2는 평균 0.37%, B1 2.69%, B2 5.47%로 세대별 차이가 있었다. 발아율은 F1 93.8%, F2 40.8%, B1 59.5%, B2 65.9%였고, 천립중은 F1은 균일하였으나, F2, B1, B2 세대는 분리현상을 보였다.
2. 체세포 염색체수: F1은 28개로 이론치와 일치하였으나, F2와 B1은 고어수체, B2는 20~21개의 염색체를 갖는 개체가 많아 이론적 분리비와 일치하지 않았다
3. 교잡능력, 염색체수, 화분활력, 임성, 감수분열 현상등의 상호관계:  
TC/호밀에서 호밀을 부분으로 할때는 임실율이 높았으며 TC를 화분으로 하였을 때는 극히 낮거나 교배가 되지 않았다. 여기서 얻은 F1 (TC/호밀)에 양친을 화분으로 여고배할 경우 호밀을 사용하는것이 TC를 사용하는것보다 교배성공률과 교배 종자의 발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차세대 임성개체의 비율은 오히려 TC를 사용한 B1 세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수당 임실립수도 많아 TC 품종육성에 TC를 여고배 하는것이 용이함을 나타내었다. 즉 이 TC를 화분으로 사용해 F1과 교잡할 경우 교배율은 낮지만 교배된 종자는 대부분이 hyperploid(고이수체)로서 임성개체의 비율이 높고 수당 임실립수가 높은데 반해 호밀을 여고배 했을때는 교배율은 높지만 교배된 종자는 대부분이 hypoploid(저이수체)로서 임성개체의 비율이 낮고 수당 임실립수도 적다는데 큰 차이점이 있다.

